

“프랑스문단에 우리 소설 바람 있다”

한국문학의 佛譯소개 애쓰는 최현무교수

우리문학이 ‘한국’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속에 우뚝히 자리매김하는 데는 91년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듯하다. 그것은 우리문학의 해외소개가 예년에 비해 숫적으로 잦아졌다는 외형의 문제라기보다 외국문단을 “강타했다”고 표현될 만큼 우리의 작가와 작품이 전례없이 그쪽 독서계의 줄기찬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지난달부터 작가 이문열에 대한 놀라움에 가까운 찬사로 시작된 프랑스문단의 관심은 거의 모든 신문들이 서평란을 통해 악트쉬드 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문학총서’에 대해 언급했고, 최근에는 프랑스내 가장 진보적인 성격의 신문으로 불리는 리베라시옹이 직접 특파원을 보내어 이창준, 조세희, 이균영, 이문열 등 한국문학총서에 실린 작가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기도 했다.

이같이 프랑스문단이 “새로운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문학을 집중조명한 데는 소개된 작품들의 우수성만큼이나 이의 번역을 도맡았던 최현무(서강대 불문과교수)씨의 역할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을 듯하다. 프랑스내 문학전문 출판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악트쉬드사가 자국내 독자들에게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는 한국문학을 기간에 제한없이 매년 4권씩 시리즈로 내겠다고 무모할 만큼 ‘탐을 내게’ 된 데는 최교수의 2년여에 걸친 치밀한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악트쉬드사가 출판을 의뢰했던 것은 유학시절 불어로 소설을 써서 그쪽 잡지에 발표한 경력이 있는 최씨 자신의 불어소설집이었다. 아직 풋내기엔 지나지 않는 자신의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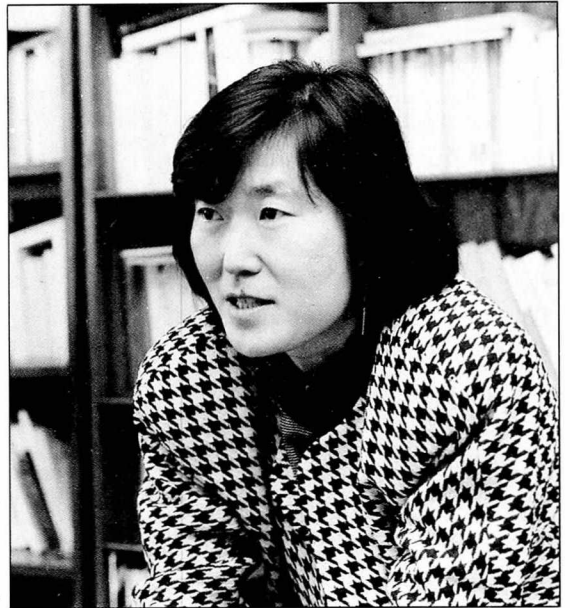
보다 한국에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 소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역으로 제안, 중편분량이 잘 읽히는 프랑스독자들을 감안하여 고른 우리소설 10여편을 작가소개 작품개요 등을 꼼꼼히 작성, 출판사측에 보여주자 한두권의 단행본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아예 시리즈로 내고 싶다고 욕심을 내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우리의 문학, 프랑스 독자들에게도 읽히고 싶다는 문학도로서의 소망에서 제안한 것인데 ‘한국문학총서’로 예정없이 규모가 커져버리자 덜컥 겁이 나더군요. 거창하게 시작해놓고 안팔리면 어떡하나 걱정도 났습니다.”

87년부터 이야기가 나와 준비작업을 거쳐 첫책을 내놓은 것은 90년 2월. 이문열의 「금시조」가 첫권이였다. 이어 같은 작가의 「그해 겨울」(5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9월), 그리고 이창준의 「이어도」,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균영의 「어두운 기억의 저편」 등 현재까지 모두 8권을 선보였다. 이문열의 작품을 첫타자로 내세운 것은 단순한 번역자가 아닌 작가선정에서부터 번역까지 전권을 본의아니게 도맡게 된 한국문학총서 ‘기획담당자’로서의 최교수 나름의 판단 때문이다.

“첫인상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 이문열씨는 중편분량의 작품이 많았고, 고른 세 작품들은 주제나 문체, 분위 등이 한 작가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독창적이어서 우리문학의 수준과 작가적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했지요. 번역서 역시 기획출판과 마찬가지로 서점에 내놓는 때가 중요한데, 프랑스문단에서 9월은 각종 문학상이 발표

“내가 좋아하는 우리의 문학을 프랑스 독자들에게도 읽히고 싶다는 문학도로서의 소박한 욕심에서 제안한 것인데 ‘한국문학총서’로 예정없이 규모가 커져버리자 덜컥 겁이 나더군요. 거창하게 시작해놓고 안팔리면 어떡하나 걱정도 났습니다.”



최현무교수.

되는 등 1년중 가장 떠들썩한 달입니다. 여기에 동구사태 1년을 맞으며 다양한 평가가 나올 즈음이어서 앞서 두권으로 이문열의 이미지를 심어놓은 뒤 이어 ‘독재매커니즘’을 탁월하게 그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때맞춰 내놓은 것이 한국문학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매우 주효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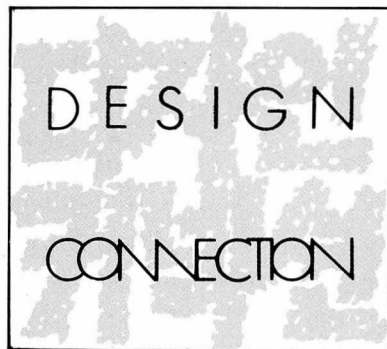
작품의 앞뒤로 들어갈 서문과 발문, 신문사에 보낼 꼼꼼한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직접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은 너무도 바쁘게 보냈다는 그는 이제 한국문학의 소개가 일정한 궤도에 오른 것에 즈음해 번역팀을 2개 더 구성했다. 지금까지 같이 작업해온 프랑스인 남편 파트릭 모뤼스씨와 최교수가 한팀을 이루고, 서강대 불문과의 강겨배 교수와 르브

랑 씨, 그리고 외대 불문과·여동찬(본명 르브리에)교수 등이 그들인데, 번역팀이 한국인과 프랑스인으로 구성,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내며 완숙한 번역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체제로 짜여진 점이 특징적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지난 88년 「문학과 사회」에 ‘최윤’이란 필명으로 「저기 소리없이 한줌 꽃잎이 지고」를 발표하면서 등단, 조만간에 첫 장편소설 「갈증의 시학」(민음사)을 펴내게 될 다양한 문학적 이력의 최교수는 “날실과 씨실로 피륙을 짜듯 기성이나 신인작가의 구분없이 우리문학의 다채로움을 보여줄 작품들로 총서의 목록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힌다.

— 정혜옥 기자

“넘겨보고 싶은책”



디자인 커넥션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12-1 강변한신코아 219호 전화) 716-8309·701-8073 FAX) 716-8309 표지디자인 본문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사보 문화행사홍보물제작

책은 많지만 넘겨보고 싶은책은 흔치 않습니다. 새로운 감각으로 독자를 이해하고 독자의 눈을 끌수있는 책, 저자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고 푸른색을 푸르게 표현하는 책, ‘디자인커넥션’은 누구나 한번쯤 넘겨보고 싶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